

漢자 漢자 속에 담긴 뜻 음미

현대불교연구원, 한문 경전 강독 모임 연다

“한글로 풀어놓은 경전도 어려운데 한문 원본 경전을 어떻게 읽어야?” 한문 경전에 대한 예기만 꺼내도 손사래를 치며 지레 겁을 먹고 물러앉은 것이 일반적인 불자들의 모습이다. 불경원전에 대한 두려움과 장벽이 그만큼 높다는 말이다.

15년 동안 불경을 읽고 번역 연구해온 불교전공자들이 모여 개인한 현대불교연구원(원장 김용환)이 ‘불교경전 강독 모임’을 개설한 이유도 ‘한문본 불경은 어렵다’는 고정관념의 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다.

12월 1일부터 6개월 과정으로 진행되는 강독 모임은 그동안 불교 경전에 대한 공부 유경 법사의 일방적인 강의식으로 전달돼 왔던 것에서 과감히 탈피하고자 제안한다. 소규모 공부 모임으로

진행될 강독 모임은 스스로 불경 한문본을 읽고 뜻을 새기고 음미함으로써 경전 읽기 능력을 키우도록 하기 위해 개설됐다. 한글로 풀어놓은 경전을 술술 읽어 내려갈 때와는 다르게 한자 한자 속에 담긴 뜻을 새기다보면 경전에 담긴 부처님의 생생한 가르침을 음미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공부 모임에서 강독할 경전은 한역 <장아함경> 중 ‘유행경(遊行經) 상, 하권. 부처님이 열반하시기전 마지막 여행길에 올라 쿠시나गर에서 위대한 죽음을 맞이하기까지의 여정을 담은 내용의 경전이다. 다양한 사람을 만나

서 다양하게 교화하시는 모습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드러나고 있는 경전으로 한문의 기초가 없어도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내용이라는 점 때문에 ‘유행경’을 택했다.

또한 이 내용과 대응되는 팔리본 남전 대반열반경을 비교, 대조하면서 함께 읽는다. 이

같은 장면을 설명하는 방식이나 내용이 한역권과 팔리어권에서 달리 표현되고 있음을 살펴 경전이 나타내고자 하는 보다 깊은 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배려다.

이번 강독은 부산대불전강독회에서

오랫동안 불경 강독과 번역에 참여해왔던 김준호 현대불교연구원 상임연구원이 진행 책임을 맡아 불교 한문의 기초를 다지고 원전의 문맥을 따라 가며 불교의 교의, 사상을 스스로 새기며 뜻을 음미할 수 있도록 이끌어준다. 강의는 현대불교연구원 강의실에서 열리며 매주 금요일 낮 2-4시, 밤 7-9시 주 야간반으로 나눠 진행된다.

김준호 상임연구원은 “누군가 풀어놓은 한글 경전을 읽을 때와는 달리, 스스로 뜻을 새기며 불경의 가르침을 곱씹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강독 모임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생생하게 살아 숨쉬는 불경을 더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016-9663-2976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53선지식 3년간 사자후

부산 여여선원 화엄산림 천일기도 법회 시작

부산 여여선원(선원장 정여)은 11월 23일부터 2009년 6월 25일까지 3년 동안 이어지는 화엄산림 천일기도 법회를 봉행한다.

여여선원은 삼랑진 금오산 자락에 위치한 여여정사가 15년간의 불사가 원만회향됨을 기념하는 한편 범종 조성 및 종각 건립 불사의 원만 성취를 기원하기 위해 3년간 53선지식을 초청하는 화엄산림 기도 법회를 부산불교회관 8층 법당에서 봉행하게 됐다.

11월 23일 오전 10시에 열린 입재법회는 영주암 회주 정관 스님을 법사로 봉행했으며 향후 3년 동안 매월 한차례씩 전국

의 선지식을 초청해 법문을 설하는 대법회를 봉행할 예정이다.

법어사 율원장 지오스님(12월 22일), 법어사 주지 대성 스님(2007년 1월 20일), 여여선원장 정여 스님(2월 20일), 해인정사 주지 수진 스님(3월 21일), 불국사 강주 덕민 스님(4월 19일), 동화사 기본선원장 지환 스님(5월 19일), 미륵암 주지 백운 스님(6월 16일), 조계종 포교원장 혜종 스님(7월 16일), 안국선원 선원장 수불 스님(8월 14일), 부산 화엄사 주지 각성 스님(9월 13일) 등이 화엄산림 천일기도 기간 중 법문한다. (051)853-5486

천미희 기자

명칭 바꾸고 조직적 대응

‘어게인 1907 부산’ 대책위 ‘불교수호위원회’로

내년 1월 구불(求佛)대법회

‘어게인 1907 부산’ 대책위원회(위원장 정여)는 11월 19일 여여선원에서 부산 불교계 전체 확대 긴급회의를 개최했다(사진).

‘어게인 1907 부산’ 불교말살 청원부흥회와 관련해 지난 10월 12일 조직된 대책위원회는 이날 타종교의 교권침해에 관한 지속적인 관심과 대응을 위해 대책위원회의 명칭을 ‘불교수호위원회’로 개명하고 조직 재구성을 결의했다.

이날 불교수호위원회는 또 내년 1월 KBS 부산홀에서 부산불교도의 단결력을 하나로 모으는 구불(求佛)대법회 개최를 결의하고 소위원회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정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불교청년회는 이번 사건과 관련 11월 18일 부산불교회관에서 전국청년불자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해 전국 청년불자들이 조직적으로 참여하는 ‘어게인



1907 부산 청년불교대책본부(본부장 손정현)를 결성했다. 향후 대한불교청년회는 ‘어게인 1907 부산’에 대한 대응을 전국 사업으로 채택, 보다 조직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 ‘사람이 무너지도록’이라는 기도 문구를 사용한 당사자들의 공식적인 사과와 이명박 전 시장의 공개 사과를 요구하기로 결의하고 이 요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범국민적 참여운동으로 전개해 나간다는 의지를 재천명했다. 이은아 기자

감로사 보살계 수계산림 입재

부산 감로사(주지 혜총)는 11월 21일 감로사 삼천불삼천배 기도회관에서 감로사 보살계 수계산림 입재 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감로사 회주 법회 스님은 법어를 통해 “여러분은 매일매일 많은 업을 지으며 살아 가고 있다”며 “보살계를 수하는 과정을 통해 그 동안 지은 업을 녹이고 바른 몸가짐을 갖도록 정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혜총 스님은 보살계를 설하기에 앞서

“부처님의 법을 받고 지키는 것은 무한한 공덕을 지나는 것”이라며 “보살계를 통해 스스로를 돌아보고 부처님의 바른 제자로 부끄러움이 없는 몸가짐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아 기자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산지사 : (051)632-0064
경남동부지사 : (055)353-1196
경남서부지사 : (055)355-7472
울산지사 : (052)272-0909

“사회복지 포기는 중생구제 포기”

울산 연화사 호계불교대학 보각 스님 특강



각원사 울산포교원 연화사(주지 덕륜) 호계불교대학은 11월 22일, 29일 양일간 중앙승가대학 교수 보각 스님을 초청, ‘불교와 사회복지’라는 주제로 강의했다(사진).

연화사 주지 덕륜 스님의 집전으로 참회와 발원을 ‘법회 연속’에 이어 진행된 이날 강의는 호계불교대학 수강생을 비롯 불자 80여명이 참석했다.

보각 스님은 “부처님께서 지금 이 땅에 다시 오신다면 반드시 사회복지사업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보살행의 실천이 곧 사회복지이므로 불교계가 사회복지사업에 매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스님은 “불교가 사회복지를 외면하

면 부처님이 중생 구제를 포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중생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중생이 처해진 상황과 조건에 걸맞게 중생의 고통을 해결해주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진정한 사회복지”라고 말했다.

보각 스님은 “배가 고프는 이에게는 먹을 것을 주고 마음이 괴로운 이에게는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이 보살행의 실천이며 그것이 곧 복지이니 모든 불자들이 내 가까운 이들의 아픔과 고통부터 살피고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천미희 기자

‘불국토 상락정’ 다도체험 행사

사회복지법인 불국토 상락정(원장 정관)은 11월 16일 상락정 생활관에서 부산여대 차문화복지과 학생들과 어르신들이 함께 하는 다도체험 행사를 가졌다.

다도시연, 전통문화체험, 다도체험 등으로 진행된 이날 프로그램은 부산여대 차문화복지과가 부산광역시 문화예술과의 지원을 받아 실시한 프로그램으로 차를 매개로 우리 전통문화를 체험해보는 내용으로 꾸며졌다. 천미희 기자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 원범 스님(사진 가운데)과 직원일동이 부산 진시장에서 탁발순례를 하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난치병 없는 부산...’ 탁발순례 첫걸음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본부장 원범)는 11월 23일 부산역에서 ‘난치병 없는 부산 만들기’와 관련된 기자회견을 갖고 부산진시장, 자유시장 등 재래시장 탁발 행사를 가졌다.

이날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 본부장 원범 스님은 기자회견을 통해 “희귀 난치병을 앓고 있는 환자가 날로 늘어나고 있는데도 치료비의 부담으로 고통받는 이

들이 많다”며 “생명나눔으로 난치병 없는 부산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는 향후 난치병 없는 부산 만들기를 위해 ‘희귀난치병 환우 치료비, 수술비 마련을 위한 탁발대장정’ ‘100원 희망 저금통 나누기’ 등의 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천미희 기자

海印寺 高麗刻板 「사간판 인경본」 보급 불사 안내

고려시대 불교신앙을 한눈에 알 수 있는 사료가치의 최고를 드립니다

해인사는 고려각판을 보존하기위해 해인사 사간판 인경불사를 지난해 9월부터 시작했으며, 지금까지 인경을 마친 인경본을 사찰은 물론 불자들에게 한정 보급합니다. 고려팔만대장경이 제작되기 전인 900년대에 제작된 것부터 1960년대에 제작된 것까지 모두 158종 5986권이 현존하고 있습니다. 28종이 국보 206호로, 26종이 보물 734호로 지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대부분 간행기록이 남아있어 고려시대 불교신앙의 경향과 서지학적 변화를 알 수 있는 귀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海印寺刊板이란?

팔만대장경을 보관하는 두 동의 큰 관전인 범보전과 수다라장 사이에 있는 동사간판과 서사간판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경판이 보관되어 있는데, 이 목판을 흔히 ‘해인사간판(海印寺刊板)’이라 불렀습니다. 이 목판은 국가기관인 대장도감大藏都監에서 새긴 해인사 대장경판(국보 제32호)과는 달리, 지방관청이나 사찰에서 교육을 목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각 「사간판 인경본」 10질 한정 보급!!



80화엄경변상도(주본)				시왕생탈경				대문금강경				인진보감			
장 이름	총 권	판매가	비 고	장 이름	총 권	판매가	비 고	장 이름	총 권	판매가	비 고	장 이름	총 권	판매가	비 고
묘법연화경	7권	100만원		능가경회역	4권	50만원		대문금강경	1권	100만원	국보 206-20	80화엄경변상도(주본)	1권	200만원	국보 206-14
인 천 보 감	상·하 2권	200만원	국보 206-9	심 부 주	4권	50만원		시왕생탈경	2권	200만원	1권 국보 206-10	80화엄경변상도(진본)	1권	100만원	국보 206-13
경덕전등록	10권	200만원		대승능가경	1권	50만원					1권 보물 734-3				

입금계좌 : 농협 843174-51-013471 (예금주 : 해인사)

구입문의 : 경남 합천군 가야면 처인리 10 해인사 (해인사 고려팔만대장경보존연구원) 전화 055)934-3095 / 팩스 055)934-3096

